"불국사 건립 사상, '석존 귀향설법' 기반"

남동신 교수, 22일 신라학 국제심포지엄서 주장

김대성 불교적 효행 원력 담겨
석존 귀향해 父王에 설법 일화
최고 불교 효행… 건축적 재현
唐 대명궁 등 中왕궁 건축 차용

경주 남산 · 헤이죠노 사원 비교
韓日 불교학자 10명 주제 발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경주 불국사 건립의 사상적 기저로 〈법화경〉과 〈화엄경〉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하지만, 불국사 건립 불사는 '석가모니 귀향설법'을 최고의 불교적 효행으로 보고 이를 건축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김대성의 효심과 원력이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동신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국립경주박물관이 8월 22일 '금성(金城)의 남산과 헤이죠쿄(平城京)의 동산(東山)-왕경주변의 산림사원에 대한 한일 비교'를 주제로 박물관 강당서 개최한 신라학 국제심포지엄서 이같이 주장했다.

남동신 교수는 '불교적 이상세계로서의 불국사'에서 8세기 동아시아 불교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불국사가 왜, 무엇을, 어떻게 건립하고자 했는지에 대해 고찰했다.

최고 권력자였던 대상 김대성은 현생의 부모의 명복을 석가모니 부처님께 빌고자 했고, 이를 위해 불교적 이상세계를 상징하는 '불국(佛國)'이라는 사명을 가진 사찰을 건립하게 됐다.

그렇다면 김대성은 어떤 사상을 근간해서 불교적 이상세계를 사바세계에 건축적으로 재현하고자 했을까. 남동신 교수는 '불국'의 의미를 역사상 실재하였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나라와 대승불교에 등장하는 시방삼세불의 나라로 구분했고, 이중 전자가 '불국'의 배경이 된다고 봤다.

전자의 나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국이자 부왕 정반왕이 다스리는 카필라성(Kapilavastu)으로 남동신 교수는 이를 배경으로 한 '석존의 귀향설법'에 주목했다.

석존의 귀향설법은 부처님이 정각 후 6년 뒤 정반왕의 요청으로 고향에 방문해 니그로다숲과 왕궁에서 석가족에게 설법한 일화이다. 문헌에 따라서 귀향 시기, 설법 내용, 장소 등은 들고남이 있지만 〈불본행집경〉〈불소행찬〉 등 주요 불전문학, 이를 중국 승려들이 재구성한 〈석가보〉〈석가씨보〉 등에 빠짐없이 나타난다. 이들 문헌은 김대성 당시 동아시아 불교권에서 널리 유통됐다.

남동신 교수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표다. 불자인 김대성이 현생 부모의 명복을 빌겠다고 발심했을 때 그가 택할 수 있는 최고의 불교적 효행은 '석존의 귀향설법'"이라며 "그가 구현하고자 한 불교적 이상세계는 바로 카필라성에서의 부처님의 설법으로 불국사는 이를 건축적으로 재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처님의 고국 카필라성을 불국으로 본 김대성은 이를 당시 중국의 왕궁을 통해 건축적으로 재현하려 했다. 7~8세기 당시 인도 카필라성을 다녀왔던 현장의 〈대당서역기〉와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서는 일대가 황폐해졌음을 알리고 있어 현실적으로 건축적 모델을 찾기 어려웠다. 남동신 교수는 불국사의 정면(Facade)를 통해 유추했을 때 중국 왕궁에서 그 모델을 찾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장대한 대(臺)와 '출(出)'자형 포국(布局)을 살펴보면 수당대 황궁 건축을 대표하는 인수궁(구성궁)과 대명궁 함원전에서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면서 "세속적 왕궁 건축을 차용했지만 불교식으로 장엄하는 장치로서 백운교 앞에 있었던 연지가 있었다. 불국사의 건축물과 이것이 연지 수면에 비치게 함으로서 불국사는 청정한 불국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일본 관련 학자 10명이 신라 왕경의 남산과 일본 헤이죠쿄 동산의 불교사원을 비교하는 연구 논문들을 발표했다.

신종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신라시대 경주 남산불적의 의의'를 통해 남산이 불교의 성지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산신(山神)이 거처하는 영험한 곳이었음을 강조했다. 삼화령의 미륵불이 위치한 고갯마루는 토착신앙에서 장승의 위치와 같은 점, 그리고 차를 공양하는 날이 4월 초파일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명절인 삼짇날(3월 3일)이었던 점에 주목하며 "불교문화의 시대에도 기존의 토착신앙이 온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차순철 서라벌문화재연구원 단장은 '남산불적의 조사상황'에서 남산을 불국토이자 만불산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불국토 남산은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성된 것"이라며 "곳곳에 석탑, 불상과 사원이 조성된 것은 귀족 자신이나 가족의 복을 비는 기복에 일환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밖에도 일본 측에서는 다나카 도시아키 前 시가현립대학 교수, 요시카와 신지 교토대학 교수, 후지오카 유타카 오사카대학 교수 등이 참석해 일본 산림사원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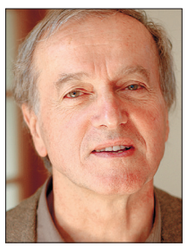


서양은 어떻게 불교를 발견했나

리앤원, 8월 30~31일 국제학술강연 · 워크숍

석학 로페즈 · 포르 교수 초청
서구 불교 인식 변화 조명


도널드 로페즈


베르나르 포르

근대를 전후로 서구에 불교가 어떻게 인식되고 정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재)리앤원(이사장 원재연)은 오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간 '서양의 불교 발견'을 주제로 국제학술강연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인도 · 티베트 불교와 동아시아 불교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도널드 로페즈(Donald Lopez) 미국 미시간대 교수와 베르나르 포르(Bernard Faure) 컬럼비아대 교수가 초청돼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한다.

도널드 로페즈 교수는 티베트 · 인도 불교 · 근대 불교를 문헌학 · 철학 · 문화사적으로 접근하며 폭넓은 연구를 펼쳐왔다. 미시간대 불교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자립논증파의 연구〉〈인도와 티베트 주석서를 통해 본 반야심경〉 등 22권의 저서를 썼으며, 한국에는 〈샹그릴라의 포로들: 티베트 불교와 서양〉이 번역 · 출간됐다.

포르 교수는 동아시아 불교 전문가로 현재는 컬럼비아대 불교 및 동아시아종교연구소장이다. 그는 불교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현대 프랑스 사상을 접목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초기에는 동아시아 선불교 연구를 중점해 왔으나, 최근에는 일본 밀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서 〈중세 일본의 신들〉을 출간하기도 했다. 국내에는 〈동양종교와 죽음〉〈불교란 무엇이 아닌가〉가 소개된 바 있다.

이번 학술행사는 워크숍과 강연회로 나눠 진행된다. 8월 30일 오후 2시 서울대 인문대학 보름홀에서 열리는 워크숍은 전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영어로 진행된다. 워크숍에서 포르 교수는 '일본 불교에서 본 붓다의 열반'을, 로페즈 교수는 '중국 청대 궁정의 티베트 불교철학'을 각각 강연할 예정이다.

8월 31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는 강연회에서는 서양의 불교 인식 변천을 확인할 수 있는 석학들의 주제 강연이 이어진다. 강연은 동시 통역으로 진행된다.

강연에서 로페즈 교수는 '초기 유럽의 석가모니에 대한 인식'을 통해 근대 이전 유럽인들의 문헌 속 붓다에 대한 인식을 소개하고 어떻게 근대불교학으로 이어졌는지를 조명한다.

'역사적 존재로서의 붓다를 찾아서'를 강연하는 포르 교수는 신화와 실증이라는 근대 불교 연구 속 붓다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을 조명하며, 이를 통한 이상적인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행사에 대해 리앤원은 "2016년부터 매년 불교와 불교미술 분야 세계 석학들을 초청해 국제학술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세계적 연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국내 불교와 불교미술 관련 학계의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학술적으로 기여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02)2261-1382

신성민 기자

탄허강숙, 2학기 수강생 모집

9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대승기신론' 등 강의

'대승기신론' 등 한문 불교 경전을 강독하는 강좌가 열린다.

오대산 월정사 부설 불교전문교육기관 탄허강숙이 2019년도 2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9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오후 7~9시에 진행되는 강의는 △대승기신론 △선문촬요 △능엄경 △선문염송 등 4개 강좌로 이뤄진다.

강사로는 동국대 前 교수 성본 스님, 이상하 한국고전번역원 교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선암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 외래교수 문광 스님이 참여한다.

과목당 수강인원은 25~30명이며 개강 전까지 선착순 마감한다. 초심자도 수강 가능하다.

수강료는 과목당 20만원이며, 4개 강좌 수강시 55만원이다. 수강신청은 메일(tanheogangsuk@naver.com)과 전화로 가능하다.

한편, 탄허강숙은 탄허 스님의 교육정신과 인재양성 정신을 계승 · 발전하기 위해 설립된 불교 한문학당이다.

(02)732-2403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천년의 숲, 천년의 사찰

BTN 불교TV 영상 공모전

2019.03.25(월) ~ 10.30(수)

공모주제

한국전통(불교)문화와 사계(四界), 불교행사 등 불교와 관련된 자유주제

출품방법

홈페이지에 신청서와 작품을 함께 메일로 접수
(접수처:btnucc@btn.co.kr)
메일 제목 및 파일명은 〈이름_작품명〉으로 기재
*반드시 연락처 기재바랍니다.

시 상

대상(1팀)	상금 500만원 및 상패
금상(1팀)	상금 200만원 및 상패
은상(1팀)	상금 100만원 및 상패
동상(3팀)	상금 50만원 및 상패
입상(5팀)	상금 10만원 및 상장

*응모편수,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작 없을 경우 시상에서 제외.

공모일정

응모기간 : 2019년 3월 25일(월) ~ 2019년 10월 30일(수)
발 표 : 9월 중 BTN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공모대상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2~4인) 구성으로 참여 가능

출품규격

해상도 : 1920 X1080
포맷 : mp4, avi, mov 등의 HD 고화질 동영상
작품분량 : 30초~5분 이내
영상형식 : 스팟, 뉴스, 찬불가 뮤직비디오, 60초 영상 등

문 의

공모전 담당자 : 02) 3270-3417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BTN홈페이지(www.btn.co.kr)

BTN 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 Btv 305번 | U+TV 275번 | skylife 181번 | 지역케이블문의:02.3270.3300